육아정책 Brief

통권 제 38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5년 6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06 June

남북 어린이 교류의 다리, 성인세대가 만들어 나가야

Ⅰ.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

올해 광복 70주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2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통독과 중국-대만 사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교육보육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모색함.

- 올해는 광복 70주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2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으로 남북 모두에게 의미있는 한 해임.
  - ▶ 지난 5월 초 남북 공동행사위원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공동행사로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1] 결국 서울과 평양의 분산행사로 결정됨.
-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에서 교육·보육 부문의 교류협력을 논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미래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과업으로, 남북의 성인세대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 ▶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남북 어린이들이 훗날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교류하기 위해 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성인세대의 노력이 필요함.
- 남북 교류협력 단계는 남북이 신뢰를 기반으로 접촉하는 첫 단추이자 관계를 진전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 통일을 이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통일 전 20여 년 동안 교류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으며(바이츠제커, 2012)[2], 중국과 대만도 2008년 이후 경제·사회 분야 중심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관광, 언론, 사법 등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강일규, 2012)[3].
- 이 글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가정하여, 교육·보육 부문의 추진과제, 추진방향 및 실천전략을 모색함.

1) 연합뉴스, 2015. 5. 8: '6·15, 8·15 공동행사' 합의.....남북 교류물꼬 틀까
2)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저, 탁재택 역(2012). 우리는 이렇게 통일했다. 창비.
2) 강일규(2012). 양안관계의 변화 관점에서 본 남북한 인력 교류협력.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 p.34

Ⅱ. 교육·보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실적[4)]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의하면 '협력 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체육,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남북 어린이·청소년 간 교류가 일찍이 성사되었으며, 민간단체 '어린이어깨동무'는 남북 어린이·청소년 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위해 노력함.

● 남북 어린이·청소년의 교류협력은 체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찍이 추진됨.

▶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으며, 1998년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방북 공연, 2000년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이 성사된 바 있음.

● 민간단체 '어린이어깨동무'[5)]는 남북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추진함.

▶ 어린이어깨동무는 1998년 북한 어린이들과의 '우정의 그림 교환'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남북 어린이 그림 교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어린이어깨동무 회원 42명이 방북하여 북한 어린이들을 만나는 교류행사를 가짐.

교육·보육 부문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2002년 연길에서 개최한 학술행사가 유일함.

● 교육·보육 분야의 교류협력 사례는 영유아를 주제로 2002년의 중국 연길에서 남북이 공동개최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회의가 유일함.

▶ 우리나라의 한국아동학회, 북한의 조선과학자협회, 중국의 연변대학민족연구원이 공동주최로(한국학술진흥재단·문화관광부 후원) 200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연길시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 북측에서 4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북한의 육아정책을 발표함[6)].

▶ 남북의 교육·보육 학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남북의 육아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매우 크나, 2002년 이후의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추가 개최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침[7)].

Ⅲ. 교육·보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과제

● 2013년도에 북한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를 토대로[8)]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표 1〉 참조), 각각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알아봄(〈표 2〉 참조).

4)이윤진·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5)어린이어깨동무는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신체적·문화적·정서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해야만 평화롭게 발전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어린이어깨동무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6월 11일)"는 신념을 가진 교육학, 사회학, 의학 분야의 교수 및 문화예술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민간단체로서 대북 어린이 지원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옴.

6)조선사회과학자협회·한국아동학회·연변대학민족연구원(2002). 21세기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토론회 논문집.

7)교육·보육 학계는 북한 교육·보육, 남북한 교육·보육의 비교분석, 통일 시 교육·보육 통합 등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과정(process)으로서의 통일'에 관심을 두고 교류협력 단계의 교육·보육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시기에 교육·보육 학계의 낮은 관심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8) 북한연구 및 북한을 경험한 남한전문가 44명, 고학력의 북한출신 전문가 37명 대상으로 실시함.

남북 교류협력 시기에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전문가 학술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인세대의 교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유아들의 상호방문은 이후에 실시함.

〈표 1〉 교육·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한 추진과제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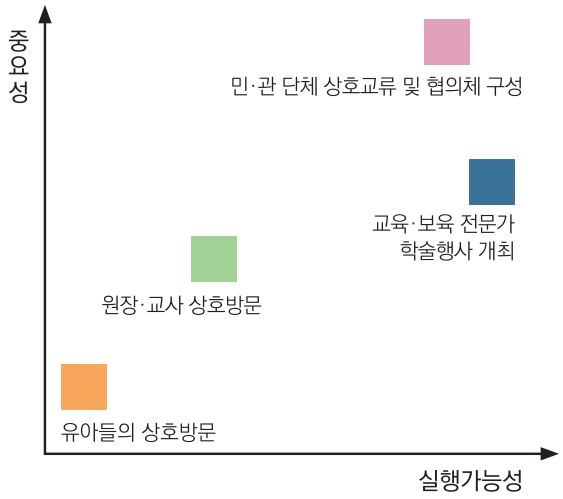
①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⑥ 민·관 단체 상호 교류 및 협의체 구성
②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상호방문	⑦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작업
③ 육아지원기관 유아들 상호방문	⑧ 육아박람회 공동 개최
④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⑨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⑤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⑩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표 2〉 남북 교류협력 시 추진과제별 중요성·실행가능성 순위별

중요성	순위	실행가능성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1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2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3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교육·보육전문가 학술행사 개최	4	원장·교사 상호방문
원장·교사 상호방문	5	육아 박람회 공동 개최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 계획안 개발	6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7	교육·보육 공동 통계자료 공동 산출
육아박람회 공동 개최	8	남북 공동의 평화통일교육 개발·실시
유아들의 상호방문	9	남북 유치원 공동수업계획안 개발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	10	유아들의 상호방문

자료: 이윤진·구자연(2013).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10

- 중요성이 가장 높은 추진과제는 '민·관 단체 협의체 구성'이며 가장 낮은 과제는 '어린이날 일원화 추진 및 실시'임. 또한 실행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제로는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는 '유아들의 상호방문'을 꼽음(〈표2〉 참조).



[그림 1] 추진과제별 중요성·실행가능성 분포도

-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 개최'는 중요성은 4순위지만 실행가능성은 1순위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만함([그림 1] 참조).

9)추진과제 목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의 추진과제를 참조하여 교육·보육 분야에 맞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발굴한 것임.

Ⅳ. 교육·보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전략

교류협력 단계에서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 선 성인세대, 후 유아세대
- 선 부분, 후 전체,
- 선 행사성, 후 정례화,
- 비정치적 영역부터

라는 추진방향을 견지하면서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

●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영유아의 교육·보육 분야의 교류사업은 매우 적었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상호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선(先) 성인세대, 후(後) 유아세대

▶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성인세대가 먼저 교류협력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에 유아들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어린이어깨동무'가 진행했던 남북 어린이의 정기적인 만남 등의 교류 사업은 성인세대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추진됨.

▶ 상호 간 배울 수 있는 육아정책을 발굴하여 학술대회의 주제로 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공동개최함.

● 선(先) 부분, 후(後) 전체

▶ 중요성은 높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남북 교육·보육 통계자료 공동 산출' 과제는 작은 것부터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함. 남북 전 지역을 통틀어 교육·보육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북한 한 지역과 남한 한 지역의 교육·보육 산출은 가능함.

▶ 남북교류협력조례를 통하여 남북의 특정 행정지역 단위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예: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북한의 남북 강원도, 경기도와 평양 당곡리) 이처럼 개별 지역 단위에서 남북 공동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선(先) 행사성, 후(後) 정례화

▶ 우선 '남북한 어린이 공동행사'를 실행해 보고,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이 자체를 남북 대화의 안건으로 정하여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감. 상호 간의 신뢰와 친분이 쌓이게 되면 '남북 육아지원협정(가칭)'을 체결하여 행사를 정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비(非) 정치적 영역부터 교류협력 시작

▶ 북한에서는 6·1절 어린이날 행사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남북 공동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사로 해석할 수 있음.

▶ '남북 어린이 공동행사 개최'는 최대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위해 남북 공동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인 연날리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줄다리기 등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함. 또한 "언제든지 북한 어린이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북측에 어필하여 남북 어린이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개최 가능성을 열어 둠.

이윤진 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